

An-young

우송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뉴스레터

世宗 御製訓民正音
나랏말싸미 중 國 內 에 달아
文 字 와 로 서 스 ㅅ ㅅ 다 아 니 홀 씨
이 런 전 초 어 린 百 姓 이 니 르 고
저 홀 배 이 셔 도
무 ㅅ 내 제 브 들 시 러 퍼 디 문 흥 노 미 하
니 라 내 이 를 爲 하 야 어 ㅅ 비 너 겨
새 로 스 를 여 ㅅ ㅅ ㅅ 를 ㅅ ㅅ 노 니
사 료 마 다 하 ㅅ 수 빙 니 겨 날 로 부 ㅅ ㅅ
안 ㅅ ㅅ ㅅ 고 저 홀 사 ㅅ 미 니 라
너



통권 제6호 | 2007. 10. 25

Woosong Korean Language Center · Woosong University
우송대학교 우송한국어교육원

2007. 10. 25 | 통권 제6호

Contents

차례

- 3 생각 | 교수 수필
- 4 새소식
- 6 느낌 | 나의 한국 적응하기
- 16 한국 바로알기 | 한국인의 주거생활
- 18 집중 11반의 여행시
- 19 편집후기 | 떠나는 아쉬움과 새로 시작하는 설레임

발행인 김선중
편집인 최 학

편집장 주 찬

편집위원 장연청, 방서, 거용, 옹효월 3학년
효심, 강용, 율효가, 왕홍 2학년

design 종려나무 Tel. 042)544-9333





찬주가 讚酒歌



글 김하윤 한국어교육원 교수

“이 험한 세상을 맨 정신으로 어찌 살아갈고?”

애주가들의 변遷이다. 그렇다.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술 독 없이는 이틀을 못 배긴다. 애인을 껴안듯 항상 끼고 살아야 한다. 주여전생酒與全生이라.

술의 공덕功德은 실로 무궁무진하다. 기쁘다고 한 잔, 슬프다고 두 잔, 분하다고 세 잔…….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술이 술을 마시게 되고, 결국은 술이 사람을 마시게 되는 것이다. 그래도 좋다. 술을 마시면 취해야 한다. 마시되 취하지 않는다면 디오니소스, 박카스에 대한 모독이다. 이유불문이다. 기호물이니 마시고, 마시니 취하는 것이다. 취하지 않으면 자리를 뜨지 않는다. 불취무귀不醉無歸라. 술은 사람을 취하게 하고 변하게 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지 술을 마신 사람에게서 취한 기색이 없다면, 그땐 벌써 술은 술이 아니요, 물 이상의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주객酒客에게 술은 모든 것을 얻게 해준다. 기울인 술잔 속에 주중교우酒中交友한 친구가 그 몇이며, 취중醉中에 얻은 진리 또한 그 얼마던가? 술은 우정의 심화深化를 위해서 불가결의 요소이니, 혼자서는 먹고 싶지 않은 술이 친구의 얼굴만 보면 생각이 나고, 또 혼자서 마시면 쓴 술이 빗과 마시면 단 이유는 술과 우정에 대한 생리적 관련성 때문이다.

또한 술은 용기를 준다. 잔을 부딪칠수록 더욱 기고만장氣高萬丈하여 영웅호걸이 되며, 세종대왕 한 장으로도 족히 천하를 손아귀에 쥐고 호령할 수 있다. 그렇다. 이것이 주정이다. 그러나 주정도 교양이다. 많이 안다고 해서 다 교양이 높은 것이 아니듯이 많이 마시고 많이 떠드는

것만으로 주격酒格은 높아지지 않는다. 주객은 절대로 술과 싸우지 않는 것이다.

옛날 스파르타인들은 노예들에게 많은 술을 먹여 연회장에 끌고 들어와서 청년들에게 구경시켰다 한다. 술에 취하면 그렇게 된다는 교훈으로 삼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술을 정당히 평가하기란 어렵다. 술을 싫어하는 자는 이를 나쁘다 하고 술을 즐겨하는 자는 이를 좋다 한다. 명심보감에 “술이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스스로 취하는 것이다. 酒不醉人人自醉”라 했다.

술은 죄가 없다. 술의 본질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단지 술을 마시는 사람에 따라 그 술이 약이 될 수도 있는 것이요,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해로울 수도 있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아니함만 못한 법이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술을 적당히 바르게 마신다면 이보다 더 정신에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 술을 마신다는 것은 극기하는 정신이요, 정신이 홀룡할수록 술을 마시는 것이 가능해지고, 또한 술로 인해 정신이 더욱 강해지고 성숙해질 것이다. 술의 맛을 알고 운치를 느낄 때 음주에 참다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무런 감흥感興의 변동도 없이 술을 접한다면 한낱 미물微物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채근담菜根譚 후집에 보면 “꽃은 반만 핀 것이 좋고, 술은 조금 취하도록 마시면 이 가운데 무한한 가취佳趣가 있다. 花開半開, 酒飲微 此中有佳趣”라 하였다. 술을 마시되 난잡하지 않고, 취하되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면 무한한 술의 진미眞味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네 인생은 짧다. 그러나 앞에 놓인 술잔을 비울 시간은 아직 충분하다. 주석酒席에서만 삶의 넉넉함을 지닐 수 있고,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숨을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의 건승健勝을 빌며, 건배!

제1회 우송대 유학생 한가위 큰 잔치

-여러 나라의 춤과 노래, 연극을 선보이며 성황리에 막 내려



우송대 유학생회(회장 : 갈호)가 주최하는 하는 제1회 유학생 한가위 큰잔치가 9월 28일 오후 우송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추석에 즈음하여 교내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추석맞이 잔치가 열린 일은 종전에도 있었지만, 체계적인 공연 형식의 큰잔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백여 명의 유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인 이번 큰잔치에는 김선종 총장, 이근태 우송정보대 학장 등 학내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격려를 하였는데 특히 김총장은 축사를 통해 "이러한 잔치가 유학생들의 한국 생활에 기쁨을 주고 학업 매진의 새로운 전기가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이정정, 장영 두 학생이 사회자로 나선 큰잔치는 제1부 악기 연주 및 노래와 춤, 제2부 연극 공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리 군이 이끄는 보컬 연주가 제1부의 화려한 막을 열었으며, 신입생들의 한국 가요 열창, 라오스 학생들의 힙합 연주 등으로 열기를 더한 공연은 베트남 학생들의 집단 민속무 공연, 러시아 남녀 학생들의 군무群舞에 이르러 그 절정에 이르렀다. 객석을 가득 메운 유학생들은 이들의 공연이 끝날 때마다 환호와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제2부 순서에서는 신라의 문장가 최치원이 당 나라 유학 때 겪은 일을 소재로 한 연극 '천년의 사랑'(극본 및 연출 : 최학 교수)이 공연되었다. 와타나(라오스), 관영동, 장연청, 류남, 유정(이상 중국), 안나(러시아) 등 역할을 맡은 학생들이 제각기 무대에서 열연熱演을 보였으며 관객들은 무대와 하나가 되어 웃음을 터뜨리고 환호를 보냈다.

이번 큰잔치는 유학생회 및 국제교류처의 전폭적인 지원과 출연자들의 열성적인 노력에 의해 큰 성공을 거둔 잔치였다는 것이 이 행사를 지켜 본 이들의 중평이었다.

한국어교육원, ‘대전시 교육청 다문화 교육센터’로 지정돼

—개원식과 함께 다문화 교육 시작



우송대학교 한국어교육원(원장: 최학)이 교육인적 자원부 및 대전시 교육청에 의해 ‘대전시 다문화 교육센터’로 지정 받아 그 개원식을 10월 2일 오전 11시 우송대학센터 강당에서 가졌다.

‘다문화 교육센터’는 외국에서 한국에 이주해 온 이

들과 그 자녀들에게 한국어는 물론 한국문화를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한국에서의 생활 적응력을 고양 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들과 함께 사는 한국인들에게는 이주민들 모국의 문화를 교육하여 서로의 이해와 협력을 높이는 동시에 이주민 자녀들의 학습활동을 도와주는 방과 후 교육도 병행한다.

이날 개원식에는 김신호 대전시 교육감을 비롯한 다수의 교육계 인사와 김선종 우송대 총장 등 학내 인사들이 다수 참가하여 ‘다문화 교육센터’의 출범을 축하하고 격려해 주었다.

국고 5천만원을 지원 받은 다문화교육센터는 개원과 함께 60여 명 부녀 이주민 및 30여 명의 그 자녀에 대한 1차(5개월 과정) 교육을 시작하였다.

백제문화제 개막 행사 참관



우리 한국어교육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350여 명이 지난 10월 11일 오후 공주에서 열린 백제문화제 개막 행사에 참가하여 생생한 백제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유학생들은 30명의 인솔 교사들과 함께 9대의 버스에 분승하여 백제의 숨결이 그대로 남

아있는 공주에 도착하였으며, 이어 무령왕릉을 둘러본 뒤 공산성 앞에 마련된 행사장에 집결했다. 이곳에서 곧이어 벌어진 기마군단 행렬, 동남아 연예단의 공연 등 각종 식전 행사를 관람했다. 오후 7시 20분 백제문화제 개막을 알리는 개막식이 거행되었다. 우리 학생들은 이후 공산성으로 장소를 옮겨 공산성의 야경을 구경한 뒤 금강에 임시로 가설된 부교를 건너 귀교를 기다리는 버스를 탔다. 야간에 이루어진 개막행사라 박물관이며 공산성내를 제대로 보지 못한 아쉬움이 남았지만 사라진 왕국 백제를 배우고 백제를 체험하는 좋은 기회였음은 틀림없다.

전국 외국인 글짓기대회에서 1등

—오서(국제통상학과 4년), 한남대학교 주최

10월 8일 한남대학교 한국어학당이 주최한 제4회 전국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글짓기대회에서 우리 대

학에 재학 중인 오서(국제통상학과 4년) 군이 영예의 1등 최고상을 받았다.

국제 결혼에 대한 나의 생각

글 왕용연 아시아통상학과 3학년



왕용연

나는 한국에 온 지 1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

는 한국 문화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제결혼에는 장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양국의 언어와 풍속, 습관 등을 교류할 수 있는 것이 그렇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는 양국 국어를 배울 수 있고 양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경험도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으로 한국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았습니다. 요즘, 나는 친구들과 함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사실, 지난 8월에 내 친한 친구 하나가 휴학하고 중국에 돌아갔습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아직 너무 젊었지만 좋은 중국 남자를 만났기에 마지막으로 결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정말 그녀를 부러워하지만 진짜 사랑하는 남자를 못 만난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처음, 나도 한국에 유학을 왔으니까 어쩌면 한국 남자와 결혼할 수 있을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남자와 사귀어 본 후에는 문제가 많아서 지금은 그런 생각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 사귀어 경험은 아무 것도 반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문화 차이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예절에 대해서 많이 조심해야 합니다. 내 생각에 한국의 예절은 정말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째가 언어입니다. 나는 외국 사람이지만 다른 한국 사람과 말을 할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반말과 높임말 같은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의 사회적 지위입니다. 내 생각에는 아직도 한국에서는 여자의 지위가 남자보다 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남자와 결혼한 여자는 음식을 비롯한 가사노동을 다 해야 합니다. 또 양쪽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도 여자의 일입니다. 그리고 여자한테는 특별히 지켜야 할 예절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남자들은 결혼 상대자에 대한 표준도 높은 것 같습니다. 내 친구 중에 한국 남자와 연애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둘은 진짜 사랑했지만 남자의 부모님이 반대해서 결국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나로서는 진짜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 남자까지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



나의 미래는 꿈이 아니야

글 이운 국제경영학과2학년

중국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 중에는 '나의 미래는 꿈이 아니야'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처음 들은 이 노래는 그러니까 싸움터로 달려 가려는 우리에게 자신감을 크게 보태 주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매일 우리는 책을 읽지 않으면 시험을 쳐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미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노래를 들은 후부터 우리들은 저마다 의지에 불탔어요, 다시 자신과 힘이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자신과의 싸움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대학에 다닙니다. 혼자서 외국 유학생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외국 생활을 대해 적잖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시 그 노래 가사를 상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창문 밖에 내리는 비를 볼 때 생각합니다. 자신의 미래는 자신이 만든다는 말을 이해합니다. 미리 미래를 포장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마다의 미래는 똑같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좋은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면 당신들의 미래는 저절로 보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생취할 줄 모르고 기회를 이용할 줄 몰랐기 때문에 당신의 미래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더욱 시기나 기회를 잘 포착해야 합니다. 뭐든지 자신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나의 미래는 꿈이 아니야". 우리는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 자신한테 말합니다.

"내 미래는 꿈이 아니야"

한국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요

글 동홍복 국제경영학과 2학년

요즘 저는 한국어 수업을 잘 듣기 위해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 전공은 국제상무예요. 한국에서 저는 한국어는 물론 영어와 전공 과목 등 많은 과목을 배워요. 수업을 열심히 듣고 숙제도 열심히 해야 해요.

한국에 오기 전에 저는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봐서 한국 문화도 좀 알고 한국어도 많이 배워서 다행히 지금은 그렇게 어려운 점이 없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음식이 입에 안 맞아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같은 기숙사에 사는 친구들이 저를 많이 도와줘서 잘 생활할 수 있었어요. 한국 친구들이 저에게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은 "한국 음식 어때요?" "좋아요?" "매워요?" 하는 것이었어요. 한국 음식이 지금은 너무 맛있고 기숙사이 아주머니들이 만드는 음식들이 너무 좋아요.

기숙사에서는 보통 아침 8시에 일어나요. 룸메

이트도 활발하고 이야기도 잘 해요. 한국에 와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교수님들도 다 잘 해주셔서 별 불편함 없이 잘 적응하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울 것이며 제가 하고 있는 전공도 열심히 할 것이에요. 저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동홍복

너무나 보고 싶은 우리 가족

글 이초 호텔외식경영학과2학년



이초

여러가지 꽃들이 피는 곳이 제 고향입니다. 제

고향은 무석입니다. 그 곳에 우리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을에 낙엽을 떨어지기 시작하면 저는 가족들이 더 그립습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넷입니다. 할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저. 할아버지는 이미 우리 곁을 떠나셨어요. 이전에 할아버지는 저를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아버지한테서 저는 많은 지식을 배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항상 네가 세상에서 최고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지금 하늘나라에서도 우리들을 그리워하시고 계실 거예요. 나도 할아버지가 무척 그립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잘 생기셨습니다. 지금 회사에 다니십니다. 아버지는 참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아버지의 현명하시면서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

다. 아버지는 자주 저에게 “너는 공부해야 한다. 과목마다 A를 받기 위해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저는 항상 가슴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볼 때 마다 예뻐지십니다. 제가 매주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기 때문에 매우 기뻐하십니다.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시니까 저도 어머니께 잘 해야 합니다. 저는 남경에서 학교를 다니느라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서운해하시며 우셨습니다. 저도 참 슬펐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많이 사랑합니다.

저희 할머니는 지금 나이가 많으시지만 아주 건강하십니다.

저는 지금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위해 한국에 유학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이별한 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하늘의 보름달을 쳐다볼 때 무척 궁금합니다.

저는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족과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글 진염아 컴퓨터 디자인학과 2학년



진염아

사람마다 마음속에는 꿈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꿈을

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서 지내는 3년 동안 저는 할 일이 많아요. 먼저,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전공인 컴퓨터 디자인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심리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

요. 하지만 미술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컴퓨터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어요. 디자인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삼 년 동안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우송대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일하면 중국에 돌아갈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대외무역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요.

이러한 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는 매일 맑은 정신으로 공부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꼭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요. 제 미래를 위해서 화이팅!

공기가 맑은 것처럼 친절한 한국 사람들

글 호민 컴퓨터디자인학과 2학년

부지불식간에 두 주간의 한국 생활이 지나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한국의 생활과 학습에 많이 적응되었습니다. 매일 시간표대로 공부를 합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과외활동이 있어서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한국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는 수업이기 때문입니다.

두 주 전, 비행기가 이륙할 때, 우리의 마음도 비행기와 함께 날아올랐습니다. 한국이 우리나라와 가깝지만 그래도 타국입니다. 지금 우리의 미래는 우리 각자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압니다. 문득 어깨에 짊어지는 부담이 무거워 집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는 더 성장합니다.

외국의 일상생활에서는 스스로 돈을 관리하고, 학업과 교재 준비도 스스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학 초기에는 모든 학생들이 아주 바쁜 것 같았습니다. 그런대로 저는 지금 일체의 것들이 순조롭습니다.

한국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저는 산과 물이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건축물들은 싫어합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 쌓여 있습니다. 구름이 많을 때는 때때로 구름이 산정을 삼켜 버립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요즘 여기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온 후에는 기분이 상쾌합니다.

학교 수업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과외의 시간이 많습니다. 책을 읽고, 인터넷 접속을 하고, 기숙사 방에서 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 서울에는 못 가 봤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꼭 가 보려고 합니다.

한국은 공기가 맑은 만큼 사람들도 친절합니다. 인사가 밝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안녕하세요?"라고 합니다. 교통도 아주 좋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교통사고 난 것을 못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통규칙을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은 중국보다 더 좋습니다.

이제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어요

글 유영 국제통상학과 2학년

부모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건강하게 잘 계셨어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 온 지도 벌써 10여 일이 됐네요.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말을 일 년 쯤 배웠지만 걱정을 많이 했어요. 말도 잘 못하는데, 낯선 한국에서 적응 할 수 있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말을 더 잘 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요즘은 수업이 많아서 힘들어요. 오전에는 전공 수업이 있고, 매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는 한국어 수업이 있어요. 한국어 공부는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저는 한국 생활을 아주 재미있고, 즐겁게 하고 있어요.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쉬는 날에는 친구들과 같이 시내에 가고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먹어요. 지하철을 타고 대전에 있는 백화점에도 가고, 시장에도 갔어요. 이번 주말에는 백화점에서 옷도 샀어요.

한국 음식도 아주 맛있어요. 처음 먹었을 때는 너무 매워서 먹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잘 먹게 되었어요. 제가 중국에 가면 만들어 드릴게요.

이곳의 기숙사는 남경의 기숙사보다 좋아요. 남경의 날씨는 더워서 기숙사 안도 덥지만, 한국의 기숙사에는 에어컨이 있어서 시원해요. 또 겨울에는 스팀 장치가 있어서 따뜻하다고 하네요. 그러니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부모님, 많이 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볼 때까지 건강하세요. 저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하는 딸 유영 올림



한국생활의 이모저모

글 임가향 국제경영학과 2학년



임가향

한국으로 온 지 한 달 쯤 되는 저는 지금 새로운 환경에 천천히 적응해 가

고 있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간단히 제 생활 환경을 소개하고 싶어요. 저는 룸메이트 한 사람과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방이 크지는 않지만 아늑해요. 우리 방에는 침대, 옷장, 책상 그리고 에어컨이 있어요. 여타 물품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요. 기숙사 매 마다 샤워실, 화장실, 세면장과 휴게실이 있어요. 휴게실에는 텔레비전이 있어서 주말에 친구들과 같이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봐요. 식사는 기숙사

아래 층에 있는 식당에 가서 해요. 채소와 육류 등 갖가지 요리가 다 있어요.

다음, 제 전공은 국제경영이에요. 요즈음 전공 수업은 영어와 한국어로 배워요. 매주 삼일은 전공 수업으로 바빠요. 영어는 오전에 공부해요. 한국어는 매일 오후에 수업이 있어요. 우리 한국어 반에는 13명의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업시간이 아주 재미있고 유쾌해요.

며칠 전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친구와 함께 쇼핑을 갔어요. 중국에서 한국어를 일 년 쯤 배웠지만 잘 못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아직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한 달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활동에 참가했어요. 그 활동들이 다 재미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생활이 점점 더 좋아졌어요. 앞으로의 생활도 기대돼요.

내 의지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싶다

글 강용 국제경영학과 2학년



강용

인생의 많은 목표 속에서 우리 인간은 좌절하고 곤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신에게 '강인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한국에 유학 온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았습다. 이국 땅에 와 보니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듭니다. 비록 한국에 오기 전에 1년 정도 한국어를 배웠지만 지금 말도 잘 안 통합니다. 그리고 음식도 입에 맞지 않아서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제게는 몹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힘들 때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헬렌 켈러에 관한 책을 떠올렸습니다. 보지 못할 뿐 아니라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는 다른 사람이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헬렌 켈러가 발견한 세상은 어둠 뒤에 보이기 시

작하는 별천지입니다.

몸은 장애를 갖고 태어났지만 그녀의 정신은 아주 굳셈니다. 그리고 자신의 강건한 의지로 각종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강인함은 정말로 'Power'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 많은 핑계를 댑니다.

강인함은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처럼 궁지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을 줍니다. 강인함은 목숨을 구하는 약처럼 병세가 막바지에 이른 사람에게 희망을 줍니다. 강인함은 우리에게 힘을 줘서 곤란 앞에서 강해지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강인함으로 한국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와 같이 즐거운 생활을 할 겁니다. 지금 아직은 한국 생활이 익숙하지 않지만 하루하루의 생활은 즐겁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의 어려움을 꼭 이겨낼 겁니다. 그래서 훗날 크게 성공하고 크게 웃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저와 같이 함께 웃어 보실래요?



한국 생활

글 양로 호텔외식경영학과 2학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온 지 한 달쯤 됐습니다. 남경효장대학교에서 1년 동안 한국어를 배웠습니다만 아직 잘 하지 못해요. 저는 외식관리학과 2학년입니다. 우리 대학에는 여러 나라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물론 중국인, 미국인, 월남인, 러시아인, 라오스인 등 많은 나라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컴퓨터디자인학과는 산 위에 있는데 매일 수업 때문에 산에 올라가는 일이 너무 힘들어요.

제가 생활하는 기숙사의 환경은 아주 좋습니다. 한 방에 2명씩 삽니다. 제 친구는 저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합니다. 우리는 자주 청소를 합니다.

학교 식당의 음식은 아직 입에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도 매일 친구와 같이 밥을 먹는 때가 기분이 제일 좋습니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한국어교육원에서 열심히 한국어를 배웁니다.

그저께, 친구 한 명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열 명의 친구

들이 같이 불고기 먹으러 왔습니다. 한국 소주는 너무 싱거워서 우리 입에 맞지 않습니다.

주말에는 친구와 같이 쇼핑을 합니다. 처음 시내에 나가는 것이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국 말을 잘 못해서 말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사람들이 많아서 복잡했습니다.

저녁에 기숙사에 돌아오니 부모님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꼭 성공하겠습니다. 엄마 아빠도 안녕히 계세요.



양로

재미있는 '생생한국어'

글 변소교 호텔외식경영학과2학년

여러분 생생한국어 수업을 들었어요?

우송대학교는 유학생들이 한국어를 잘 공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생한국어 수업을 마련했습니다. 생생한국어 수업은 매 수요일 오후 3시에 시작해서 6시에 끝납니다. 생생한국어 수업은 클래스에 따라 내용이 다른데 모든 클래스는 돌아가면서 한 번씩 색다른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생생한국어 수업의 내용은 태권도 기본동작, 종이접기, 한복입기, 한국음식 만들기, 노래 배우기 및 한국의 고등학교 체험 등 아홉 가지를 포괄합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배운지 4주일 됐는데 생생한국어 수업은 그 동안 두 번 참가했습니다. 지난 번에 저는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체험 수업을 했어요. 반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같이 택시를 타고 대전여자상업고등

학교에 가서 체험을 했어요. 날씨도 참 좋고 기분도 참 좋았습니다.

그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다 여학생들인데 활발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홍보영상물을 관람하고 수업참관을 하고 동아리방 방문을 했습니다. 그날의 생생한국어 수업은 정말 풍부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 생생한국어 수업을 참가하고 싶지요?

빨리 오세요!



변소교

나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운 한국 생활

글 왕아남 컴퓨터디자인학과 2학년

대전은 중국 청도와 기후가 비슷해요 한국은 공기가 깨끗하고 바람이 시원해요. 그렇지만 요즘 비가 많이 와요.

한국 사람들은 옷 입는 것을 중요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 시내에 갔는데 옷이 참 예뻐지만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많은 선배가 동대문과 남대문 시장에 간다고 해요. 좋고 싼 물건을 사려면 그곳에 가면 된다고 했어요. 특히 가방이 좋다고 해요. 저도 시간이 있으면 서울에 가서 쇼핑하고 싶어요.

한국의 음식으로는 뭐니뭐니 해도 김치가 유명해요. 많은 종류의 김치 요리가 있어요. 그 중에 김치찌개, 김치전이 참 맛있어요. 그렇지만 탕은 매워요. 저는 중국의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데 한국의 음식이 더 입에 맞는 것 같아요. 학교 근처에 깨끗한 식당이 있어요. 그저께 친구하고 같이 가서 불고기를 먹었어요. 혼자서 2인분씩이나 먹었어요.

우리 기숙사 아주머니는 친절하고 마음씨가 좋아서 저는 매일 배불리 먹고 마십니다. 북경은 평탄하고 큰 길이 많아요. 그런데 한국은 오르막과 내리막이 많아서 길을 갈 때 힘들어요. 디자인학과는 산 위 건물에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디자인 수업을 하려면 등산을 해야 해요. 저는 좋은 친구와 둘이서 기숙사에서 살아요. 기숙사가 작지만 편안해요. 에어컨, 스팀, 화장실, 샤워실, 세탁기가 다 있어요. 특히 기숙사가 도서관과 가까워서 좋아요. 시간이 많이 절약돼요.

한국에는 자동차가 많아서 자전거 타는 것이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자전거를 안 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버스가 막히면 지하철로 갈아탈 수 있어요. 그리고 고속버스, 마을버스, 택시가 있어서 편리합니다. 이번 추석에는 제 친구들과 기차를 타고 서울에 가려고 해요. 재미있게 놀다 오겠어요. 안녕.



김치와 불고기

글 설해화 컴퓨터디자인학부 2학년

아직 한국 생활이 짧지만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특

히 한국의 음식이 이젠 아주 맛있어요.

한국인의 주식은 쌀로 지은 밥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은 김치와 불고기에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김치가 얼마나 매운지 거의 먹지를 못 했어요. 그런데 자꾸 먹어 보니까 이제는 김치를 잘 먹게 됐어요. 매일 매일 김치를 먹다 보니까 김치를 만드는 방법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식당 아줌마에게 물었어요. 아줌마의 설명에 의하면 김치는 일반적으로 소금, 양파, 마늘, 빨간 고추, 어패류 등을 넣어 만든 양념을 배추, 무, 오이에 버무려 만드는데 일정기간이 지나야 제 맛이 난다고 했어

요. 김치가 맛있지만

만들려면 너무 복잡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한국 음식 중에서 불고기를 가장 좋아해요. 한국에 온 지 3주일 동안 불고기는 너무 비싸서 한 번밖에 못 먹었어요. 중국에 있을 때는 많이 먹었지만, 한국에서는 처음 먹어봤어요. 그래서 아주 많이 먹었어요.

불고기는 간장, 참기름, 참깨, 마늘, 양파 등 갖은 양념에 절인 고기를 화로에 구워 먹는 음식이에요. 만드는 방법은 먼저 얇게 썬 고기를 갖은 양념에 버무린 후, 양념이 배인 고기를 숯불에 구워 상추, 깻잎 등의 야채와 곁들여 먹으면 돼요. 불고기는 한국의 다른 음식들과는 달리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특히 중국 유학생들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비록 비싸서 자주 먹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한국에 왔으니 꼭 김치와 불고기를 먹어 보세요. 우리 같이 가요.



즐거운 생활을 위한 처방

글 호심 국제통상학과 2학년

“즐겁게 사는 사람은 기쁜 세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올해 8월 27일부터 제 인생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날 오후 한 시에 저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이후로 저는 기쁨의 세계에 들어섰습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 동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쁨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쁨은 웃음으로 표현됩니다. 즐겁게 사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면 매일 아침에 거울 속에 있는 자기한테 웃어 보입니다. 웃기는 일을 만날 때 그냥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요즘 밖에 나가서 자주 쇼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물가가 너무 비싸서 빈손으로 기숙사에 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거리에서 친구들과하고 구경도 하고 군것질도 해서 재미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과 매일매일 농담하고 재미있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이야기하며, 같이 바보처럼 웃기도 합니다. 옛사람들은 ‘일소일소, 일로일로 一笑一少, 一怒一老’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웃으면 더 예뻐진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많이 웃었습니다.

부모님이 그리울 땐 기숙사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경우 포기

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친구와 같이 얘기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친구와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친구는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제 친구들은 나를 많이 도와 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분이 나쁘면 생각을 하지 말고 편하게 음악을 들으면서 잠을 자는 것이 스트레스를 푸는 최상의 약입니다.

유학생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것이 힘들지만 계속 기쁜 마음으로 생활하고 웃음을 유지한다면, 인생의 열매는 달 것입니다.

유쾌하게 지내는 것이 육체와 정신에 가장 좋은 건강법입니다.



추석

글 장천 호텔외식경영학과2학년

매년 음력 8월 15일은 전통의 추석입니다. 그 때가 바로 가

조금 다릅니다. 중국에서는 추석 때 월병을 먹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송편을 먹는다고 들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추석입니다. 그날 우리 중국 학생들은 한국에서 추석을 지낼 것입니다. 집에 돌아갈 수 없어 섭섭하지만 기분은 아주 즐겁습니다. 여러분도 부모님이 보고 싶으면 빨리 전화를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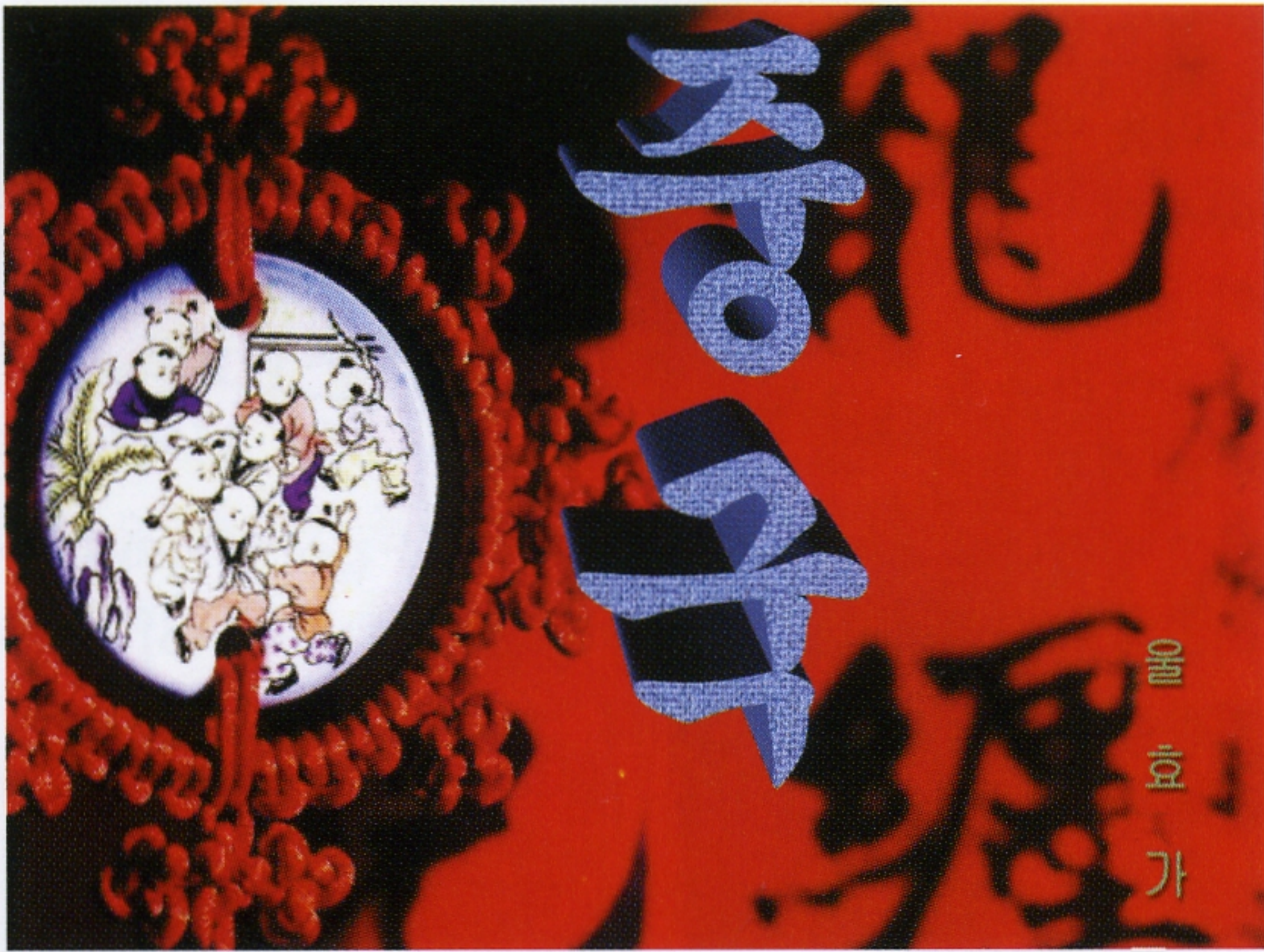
을의 한 가운데이기 때문에 추석(한가위)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중추절이라고 합니다. 8월 15일에 뜨는 달은 다른 달의 보름달보다 훨씬 더 둥글고 큼니다. 그날 밤, 사람들은 하늘의 큰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고 친지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중추절은 중국에서 천년의 역사를 이어 왔습니다. 한국의 추석도 비슷할 것입니다. 역사는 비슷하지만 풍습은



중 국

글 율효가 호텔외식경영학과2학년



중국은 북반구에서 아시아 동쪽, 태평양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다, 육지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도는 닭 모양입니다. 닭의 머리 쪽은 동쪽을 향하고 있고 닭의 엉덩이는 서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북방과 남방은 기후 차이가 매우 커요. 북방은 몹시 춥고 눈이 많이 오고, 남방은 매우 덥고 비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중부 지역
은 한국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뚜렷한 사계
절이 있습
니다.

중국의

국화는 모란입니다.

중국인들은 모란 이외에도 난초 연꽃 국화 매화 등을 참 좋아합니다.

날씨가 맑고 따뜻한 봄에는 곳곳에 난초가 핀다. 난초는 하늘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습니다.

여름은 날씨가 매우 덥지만 호수 근처는 아주 시원하고 상쾌해요.

그리고 연꽃이 많이 피어 있어서 향기가 아주 좋습니다.

가을에는 하늘이 높고 산에는 아름다운 단풍이

들어요. 그때 산에 올라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기분 좋아져요.

겨울에는 춥고 눈이 가끔 와요. 눈이 오면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눈사람도 만들고 눈싸움도 해요. 그리고 매화는 추운 겨울에 핀다. 매화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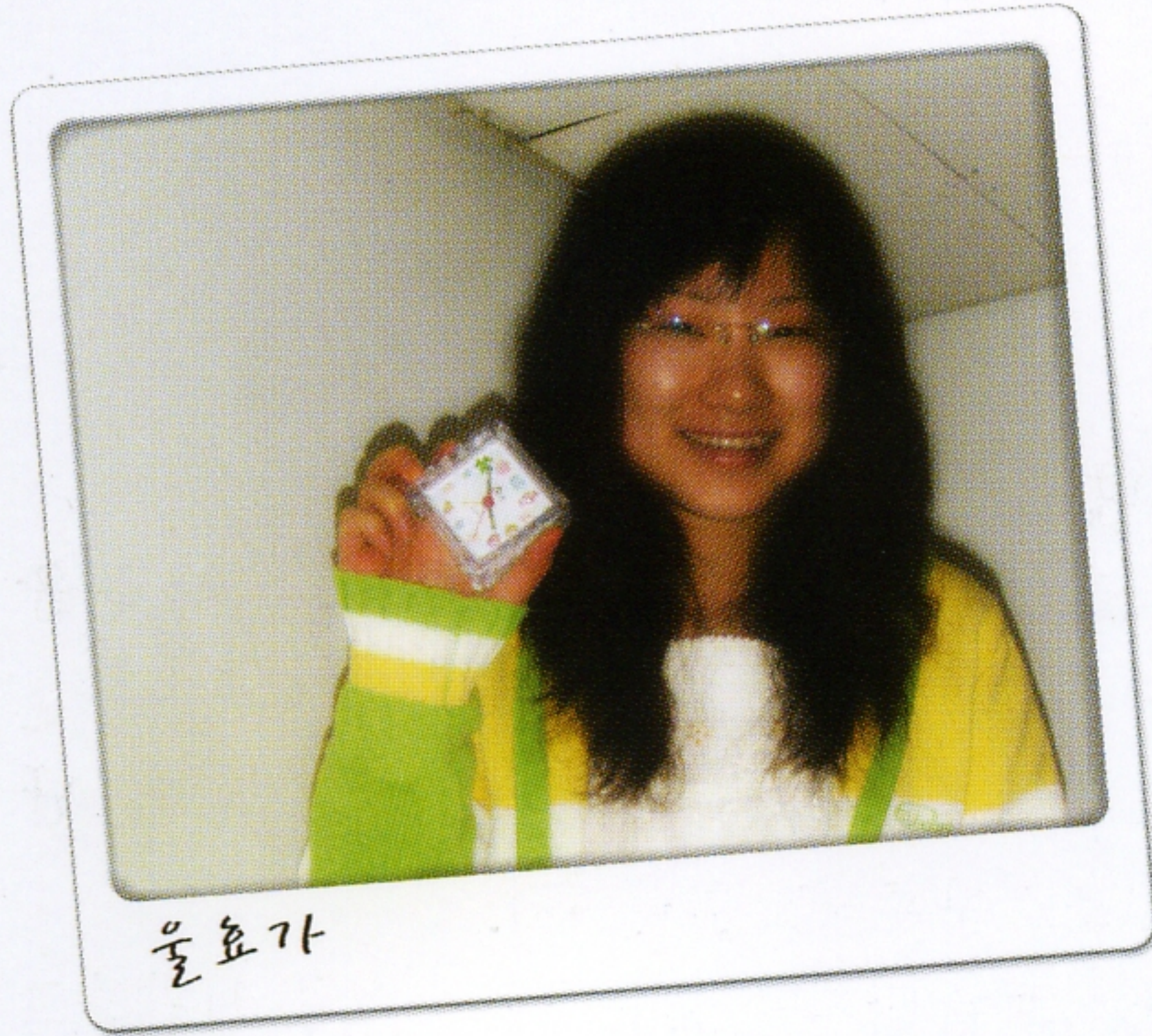
그리고 장강 남쪽의 풍경은 중국에서 제일 아름답습니다. 저는 여행하면서 운남의 풍경이 제일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운남은 하늘이 파랗고 물이 맑으며 각양각색의 꽃과 나무가 있어요.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합니다.

중국의 면적은 세계3위입니다.

러시아와 캐나다보다는 조금 작고 유럽과는 비슷합니





다. 중국은
땅이 넓고
아름다운
산과 강을
가지고 있
습니다.
그 중에
황하와
장강 중
국의 어

머니입니다.

중국 청장 고원에 있는 에베레스트산은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관광명소가 많이 있어서 여행문화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중국의 인구는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중국의 민족도 또한 많습니다. 모두 56개의 민족이 있습니다. 각 민족마다 독특한 복장과 습관이 있습니다. 그 중 한족의 수가 제일 많고 다른 민족은 한족보다 적기 때문에 소수 민족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자원도 풍부합니다.

또한 중국은 차의 고향입니다. 용정차, 보이차, 철관음차, 재스민차 등이 매우 유명합니다. 차는 중국 전통문화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중국은 도교의 발원지입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등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사람들 대부분은 종교가 없습니다. 이것도 중국 문화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중국의 용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중국인은 스스로 '용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 또한 중국의 중요한 문화 유산 중 하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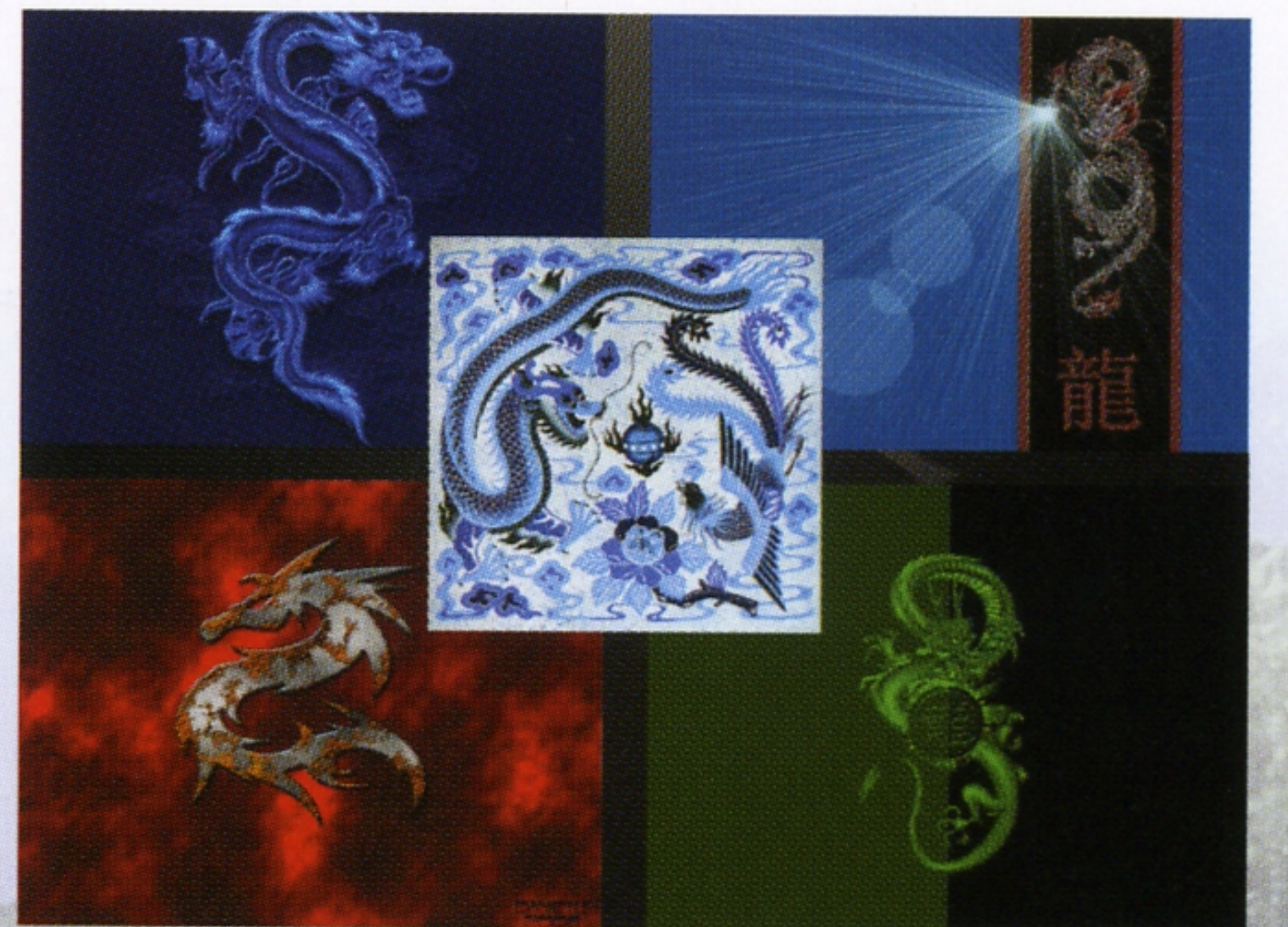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은 빨간색입니다.

중국의 오성홍기, 고대 궁궐의 벽과 문, 기와 등이 모두 빨간색이고 결혼할 때 신부가 입는 혼례복도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은 순조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스무 살이 될 때까지 중국에서 생활을 했어요.

저의 조국인 중국을 매우 사랑합니다.

한국 유학생살을 시작하면서 한국인 친구들에게 중국의 전통과 역사, 그리고 문화를 소개하고 싶었어요.



한국의 주거문화 住居文化

사람이 머물러 생활하는 여러 장소場所에 관련關聯된 것이 거주문화다. 사람의 거주 방식方式은 생활 방법과 기후氣候의 차이와 따라 변화하였다. 그렇지만, 추위와 맹수猛獸의 위협威脅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택住宅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전 세계가 똑같다.



고대 한국인들이 강가에 '움막'을 짓고 살며 고기잡이를 한 흔적은 지금도 남아있다. 흙으로 벽을 만들고 벗짚이나 갈대로 지붕을 만든 초가草家は 농경생활農耕生活이 정착定着한 이후에 나타났다. 흙을 구워 그릇을 만들던 무렵에 이미 기와瓦도 생산되었을 것으로 추측推測된다. 벽돌을 이용한 전옥塼屋은 한국에서 보기 어렵다.

한국 고유固有의 가옥家屋, 집을 한옥韓屋이라고 하는데, 기와집과 초가가 대표적이다. 한옥의 구조構造는 대문 가까이에 하인下人들이 기거寄居하는 행랑채가 있고 바깥주인이 생활하는 사랑채와 마당이 그 안쪽에 있다. 중문中門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 안주인이 거처居處하는 안채가 있다. 안채에는 안방과 건넌방이 있으며 마루로 연결돼 있다. 맨 뒤쪽에는 조상들의 신주神主를 모시는 사당祠堂과 별당別堂이 있기도 한다.

기와집은 특히 지붕의 곡선美曲線美가 아름답다. 정면正面에서 바라보면 처마가 좌우左右로 자연스럽게 솟아있다. 처마가 살짝 휘어 오르는 모습은 중국이나 일본과 다르다.

초가는 서민庶民들이 사는 집이다. 흙으로 벽을 만들며 벗짚으로 지붕을 덮는다. 때문에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다. 방문에는 한지韓紙를 붙인 탓에 햇빛과 바람이 적당하게 통한다.

온돌

한국인들은 수천 년 전부터 온돌을 이용하여 추위를 이겼다. 방바닥에 넓고 평평한 돌을 이용한 구들을 만든 것이 온돌이다. 아궁이에 불을 때면 뜨거워진 공기가 구들 밑을 지나면서 방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온돌의 따스함은 사람의 몸에 직접 닿는다. 이것은 방바닥에 직접 몸을 대고 앉는 좌식문화座式文化의 산물産物이다.

부엌과 장독대

부녀자婦女子들이 음식을 만드는 부엌은 안채에 붙어 있다. 솔과 그릇들, 땔감柴木이 이곳에 있다. 된장, 고추장 등 식재료食材料들을 보관하는 장독은 부엌 뒷마당에 있다.

축간廁間

'축간', '뒷간', '변소便所' 등은 화장실을 일컫는 말이다. '처가妻家와 축간은 멀수록 좋다'는 한국의 속담俗談이 있듯이 한옥에서 화장실은 뒷마당 쪽 멀리 떨어져 있다.



집중 11반의 오행시

장옥결

0000000학과 2학년

한 : 한가위에 고향을 애타게 그리다.

국 : 국외에서 혼자의 생활을 하다.

과 : 과거일은 전혀 생각지 않는다.

중 : 중국의 가족들은 잘 지내는지?

국 : 국가간의 간격이 내 그리움을 끊을 수는 없네.

주호우

000000000학과 2학년

중 : 중국에서 한국어를 일 년이나 배웠지만 잘 못해요.

국 : 국제 경영이 재미있지만 어려워요.

과 : 과외에 부지런히 전공 책을 읽습니다.

한 : 한국어가 어렵지만 열심히 공부해야 해요.

국 : 국제 무역인이 되고 싶거든요.

이주리

집중한국어 11반 담임

우 : 우리는 우송대학교의 어느 작은 강의실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송 : 송글송글 이마와 콧잔등에 맺힌 땀방울이 초롱초롱 빛나는 눈빛과 어울
렸습니다.

대 : 대전에서 여러분의 유학생생활이 밝고 힘차고 아름다운 젊은 날이길 바
다.

학 : 학문은 평생을 함께 하는 넉넉한 친구입니다.

교 : 교사로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日日新, 又日新(날마다 새롭게)
하십시오.

떠나는 아쉬움과 새로 시작하는 설레임

『An-young』 제2기 편집기자와 제3기 편집기자의 임무 교대



2기 편집위원

소중한 기억과 아쉬움

1년의 세월이 빠르게 지나갔다. 한국어교육원 뉴스레터 <An-young>를 통해 유학생들의 친선을 도모하고 나아가 한국어 공부와 한국문화 이해에 더 많은 보탬을 주겠다고 일을 시작한 것이 었그제 같은데 어느새 후배들에게 우리의 일을 넘기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의 작업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는지 아직은 요량할 수 없다. 아무튼 우리는 이 뉴스레터를 통해서 더 많은 친구들을 알게 되었으며, 한국어 글쓰기의 어려움과 함께 그 재미를 터득했다. 좋은 원고를 많이 모으고 싶은 욕심은 있었

지만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의 동참이 생각 같이 많지 않

아서 언제나 아쉬움이 컸다. 특히 러시아 베트남 친구들의 원고를 많이 얻지 못한 것이 여전히 미안하다.

유학생들이 쓴 서툰 한국어 원고들은 최학 원장님이 직접 고쳐 주셔서 활자로 빛을 볼 수 있었다. 원장님의 수고와 정성에 감사드린다.

우리는 뉴스레터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오래 기억할 것이다. 좀 더 한국을 알게 되면서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던 그 시간은 우리의 유학생회에서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의 후배들이 더 멋지고 유익한 뉴스레터를 만들 것을 의심치 않는다.

제2기 편집장 주찬

제2기 편집위원 장연청, 방서, 거용, 옹효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맡기 위해서, 선배 기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여 저녁을 먹고 술도 마셨다. 물론 지도교수이신 최학 원장님도 참석하셨다. 선배님들로부터 뉴스레터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 있었다. 두려움이 앞서기는 했지만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해 보겠다는 다짐은 다들 똑같이 가졌다.

남경 효장대에서 공부를 할 때부터 한국에서 보내오는 뉴스레터는 펍 재미나게 읽었다. 우리도 빨리 한국에 가서 한국생활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도 그래서 더 컸다. 그 소원이 이루어져 이제 우리 손으로 직접 뉴스레터를 만드는 기회를 가졌으니 어찌 기쁘지 않을까.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사들을 모으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는 일에도 열심히 하겠다. 지켜 봐 주십시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제3기 편집위원 호심, 강용, 율효가, 왕홍



3기 편집위원

世宗^{세종} 御製^{어제} 訓民正音^{훈민정음}
나랏말싸미 中國^{중국}에 달아

文^문 字^자 와로서르스 못디아니 할씨
이런전초로어린百^백姓^성이니르고
저훈배이셔도

인녕

무참내제브들시러퍼디물령노미하
나라 내이를爲^위하야어엿비너겨
새로스를여름字^자를령기노니
사름과다히여스빙니겨날로부메便^편
安^안한키하고저훈사르미니라